

[종합·해설]

DJ 정계개편 훈수 나서나

“민주 분당 불행한 일이었다 이제 또 다시 결심할 때 왔다”

동교동 방문 장상 대표에 발언

본격적인 정계개편을 앞두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행보에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다.

정계개편을 둘러싸고 여권이 나름대로 지향점을 찾아가기 보다는 오히려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김 전 대통령이 나름대로 방향 제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25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신임 인사차 동교동을 찾은 장상 민주당 대표에 “민주당이 분당된 것은 불행한 일이었다”며 “이제 또 다시 결심할 때가 왔으니 국민이 원하는지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 공천을 받아서 당선됐는데 분당을 하자고 나간 사람도 문제지만 민주당 일부에서 빨리 나가라고 한 것도 잘못이다”고 말했다.

이 같은 김 전 대통령의 발언은 정계개편의 시점이 다가왔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민주당이 국민의 뜻을 잘 헤아려 정계개편에 나서라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김 전 대통령이 장상 대표에게

민주당 분당 과정을 언급한 것은 정계개편 과정에서 당 내부의 갈등을 피하고 통합의 노력을 기울이라는 당 내부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치권은 김 전 대통령이 2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 등을 시작으로 언론과의 접촉 등을 통해 현 정국에 대한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김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정치적 과잉 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던 동교동계 관계자들도 이례적으로 “26일 김 전 대통령이 정치적 발언을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혀 이 같은 분위기를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 북한 핵 실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햇볕정책 유지에 줄기차게 주장했던 김 전 대통령이 다시 정치 현안에 관여, 목소리를 가다듬고 있는 것은 정계개편을 앞두고 지리멸렬한 여권의 움직임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여기에 노 대통령의 행보가 여권의 통합보다는 ‘자신만의 독자적 길’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인 것도 김 전 대



25일 오후 장상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동교동 김대중 전 대통령을 예방, 김 전 대통령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열 대변인, 김희석 원내대표, 장상 대표, 김대중 전 대통령, 배기운 사무총장, 유종필 대변인. /연합뉴스

통령을 다시 움직이게 하고 있지 않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동교동계의 마지막 보루였던 한 전 대표가 대법원 판결로 야인으로 돌아간데다 구심점을 잃은 민주당의 내부 갈등도 심상치 않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는 점도 김 전 대통령을 정치 현안에 나서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김 전 대통령이 어떠한 정치적 메시지를 던질 것인가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권은 김 전 대통령이 지난 10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분당에 여당의 비극이 있다”고 주장, 결과적으로

정계개편 흐름을 가속화 시켰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는 정계개편의 방향에 대한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계개편에 대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열린우리당, 민주당, 고건 전 총리 등을 중심으로 한 민주세력의 단결을 유도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의 여권 상황에 대해 김 전 대통령이 답답함을 많이 느낄 것”이라며 “김 전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정계개편의 방향에 대한 메시지를 던져 활로를 틀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與신당과 ‘선도탈당론’ 힘받나

호남권 의원 이어 수도권 의원까지 불름 늘어 대통령 ‘평통발안’ 후 부쩍... 실현 여부 불투명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평통 격정 발언’을 계기로 열린우리당 통합신당과 의원들 사이에서 선도탈당의 불가피성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부쩍 커지고 있다.

‘선도탈당’ 카드를 먼저 꺼내들었던 호남권 의원들에 이어 수도권 초·재선 의원들까지도 “달리 방법이 없다”며 불름을 키우고 있는 형국이다.

노 대통령 발언 이후 당내 ‘친노’ 및 중도와 공조 전선에 다소 균열이 감지되고 있는 틈새를 비집고 신당과 강성론자들의 발언권이 강해지고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은 흐름이다.

일부 수도권 통합신당과 의원들은 27일 우리당 의원 워크숍을 시작으로

몇차례 당내 논쟁을 거친 뒤에도 2월 전당대회가 당의 발전적 해체와 통합수입기구 구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새 지도부 구성을 통한 어설픈 통합수순을 밟는 것으로 귀결된다면 선도탈당 외에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수도권의 한 초선의원은 25일 “전대가 당의 발전적 해체를 위한 통합수입기구 구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위 중도파가 얘기하는 식의 통합쪽으로 간다면 전대 이전에 선도탈당이 있을 수 있다”며 “이번 대통령의 평통 발언으로 그런 동력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도탈당론이 아직은 시기

상조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고, 특히 통합신당에 적극적인 호남권 의원들조차 “먼저 탈당해 교섭단체를 구성하거나 하면 노 대통령에게 공격당할 빌미만 주게 된다”며 신중론을 펴고 있어 당장 구체적인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 양정일 의원은 “선도탈당은 방법론의 하나로 얘기할 수는 있어도 아직 그런 분위기가 된 것도 아니고 쉬운 얘기도 아니다”고 밝혔다.

광양·구례가 지역구인 유윤근 의원은 “지금 선도탈당을 내세우면 명분이 없다”면서 “수도권에서라면 모를까 호남쪽에서 선도탈당을 하게 되면 지역당으로 완전히 물리게 된다”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25일 오전 서울 답십리 신당초등학교 옆 도로에서 열린 2006 다일공동체 거리성탄예배에서 순환규 전 경기도지사와 정동영 열린우리당 전 당의장이 하이파이브를 하며 서로를 축복하고 있다. /연합뉴스

靑-고건 2라운드 준비 일시 휴전?

청와대, 정면 대응 포문 닫아 고건측도 “더이상 대응 않겠다”

세밑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청와대와 고건 전 총리간 가시화된 설전이 성탄절인 25일 ‘일시 휴전’에 들어간 느낌이다.

지난 주말과 휴일에 걸쳐 홍보수석실 명의 글을 통해 고 전총리의 ‘즉자적인’ 처신을 문제삼으며 정면대응했던 청와대가 포문을 닫았고, 고 전총리측도 “청와대의 공세에 더 이상 대응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한발짝 빼는 듯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일단 소강상태를 들어간 것.

특히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가 “고건씨는 총리 시절 회의만 하면 서 시간을 보낸 위원회 총리였다”고 비난한 내용이 일부 조간신문에

보도돼 한때 화제가 되기도 했으나,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청와대 공식적 얘기가 아니다”고 사건으로 치부, 논란은 금세 잦아들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평통 격정발안’을 계기로 한 양측의 공방을 거치면서, 노 대통령과 고건 전총리간의 정치적 결별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으며, 언제든 재충돌의 여지는 남아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참여정부 초기 국정을 함께 운영하던 제1, 2인자가 임기를 1년여 앞두고 설전을 벌이는 이례적인 상황은 서로에게 정치적 반사이익도 가져다 줬지만, 적잖은 내상도

안겨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노 대통령의 ‘고 전총리 기용 인사실책’ 발언이 “고 전총리 역량을 평가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하면서도, 노 대통령을 비난하고 나선 고 전총리를 향해 “신중론 격정발안”을 계기로 한 양측의 ‘인사실책’ 발언을 계기로 “오만과 독선에 빠져 국정을 전담했다”며 노 대통령을 정면 비판하고, 이어진 청와대와와의 공방에서도 자신들에게 결코 불리하지 않은 정치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인기가 바닥으로 떨어진 참여정부 초대 총리라는 타이틀이 오히려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지만 노 대통령 발언으로 이제 부담없이 ‘이혼 도장’을 찍을 수 있게 됐다”는 얘기가 고건 캠프 쪽에서 나오는 것도 그 같은 맥락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보다는 정치에 몰입한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반면 고 전총리측은 노 대통령의 ‘인사실책’ 발언을 계기로 “오만과 독선에 빠져 국정을 전담했다”며 노 대통령을 정면 비판하고, 이어진 청와대와와의 공방에서도 자신들에게 결코 불리하지 않은 정치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인기가 바닥으로 떨어진 참여정부 초대 총리라는 타이틀이 오히려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지만 노 대통령 발언으로 이제 부담없이 ‘이혼 도장’을 찍을 수 있게 됐다”는 얘기가 고건 캠프 쪽에서 나오는 것도 그 같은 맥락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 대선주자 “군복무 단축 정치적 이용 안돼”

박근혜 오늘 광주 방문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은 25일 정부가 검토 중인 군복무기간 단축 문제에 대해 대체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정식 발표가 없었던 것 같다”면서 “나도 바쁘게 군대에 보내왔지만 당사자나 군대 보낸 아이들 면에서 좋았을 것이다. 현재의 국방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염려해 따져본 뒤 줄일

수 있다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표는 복무기간 단축 문제를 정치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비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정식 발표가 없었던 것 같다”면서 “나도 바쁘게 군대에 보내왔지만 당사자나 군대 보낸 아이들 면에서 좋았을 것이다. 현재의 국방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염려해 따져본 뒤 줄일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26일 광주를 방문한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를 찾아 핵심당직자 간담회,양동시장과 애육원 방문, 광주·전남지역 운영위원장과 당협위원장 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한 뒤 상경할 계획이다.

박 전 대표의 광주 방문은 지난 10월15일 고 흥남순 변호사 빈소 방문 이후 70여일 만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접수안내

구인·구직·운전·모집
초빙·영입·모임
사실금융·매입·부동산
매매·임대·전세·분양

◆광주은행 : 001-107-2281 80
◆동 협 : 617-01-108334
※예금주(주)광주일보사

• 직통: (062)227-9600
• FAX: 227-9500

급 매

서석고 정문앞 장원빌라
81평 매매 2억(분양가 3억6천)

연락처 011-609-1245

전원주택지분양
(150평~250평)

● 화순읍 근교(5분거리)
● 허가필(건축가능)
● 남향 전망좋은
● 가격 전화로 결정

☎061)375-8821, 011-629-6051

(주)옥션코리아
법원 경매
☎ 222-8446 (법정경매임찰장 역)

▶ 아파트	▶ 숙박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건번호(단위:평) 가격 최저가 공용동 222 222 9,500 6,850 지명동 222 222 7,500 5,250 산하동 222 222 1,950,000 910 공용동 222 222 2,950,000 2,950 공용동 222 222 6,400 4,680 공용동 222 222 1,910,000 7,700 공용동 222 222 9,500 6,850 지명동 222 222 2,950,000 1,950,000 공용동 222 222 1,950,000 8,800 공용동 222 222 2,950,000 1,950,000 공용동 222 222 1,950,000 9,210 공용동 222 222 1,950,000 1,9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건번호(단위:평) 가격 최저가 공용동 222 222 1,950,000 7,288 공용동 222 222 4,714 3,500 공용동 222 222 1,917,000 9,748 공용동 222 222 1,950,000 9,079 공용동 222 222 1,950,000 5,200 공용동 222 222 3,950,000 2,950,000 대산동 222 222 1,950,000 1,950,000 공용동 222 222 5,677 9,909 공용동 222 222 1,950,000 6,800 공용동 222 222 9,800 5,348 공용동 222 222 4,771 3,348
▶ 다가구(원룸)	▶ 근린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건번호(단위:평) 가격 최저가 공용동 222 222 3,957,000 2,951,544 공용동 222 222 1,975,111 7,845 공용동 222 222 5,922,333 2,949,300 공용동 222 222 2,942,000 1,951,100 공용동 222 222 4,981,188 3,944,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건번호(단위:평) 가격 최저가 공용동 222 222 5,900 1,918,194 공용동 222 222 2,950,000 1,918,000 공용동 222 222 7,950,000 3,954,000 공용동 222 222 1,950,000 5,929,000 공용동 222 222 4,954,000 3,929,000
▶ 근린시설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건번호(단위:평) 가격 최저가 공용동 222 222 2,950,000 1,918,194 공용동 222 222 2,950,000 1,918,000 공용동 222 222 7,950,000 3,954,000 공용동 222 222 1,950,000 5,929,000 공용동 222 222 4,954,000 3,929,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건번호(단위:평) 가격 최저가 공용동 222 222 2,950,000 1,918,194 공용동 222 222 2,950,000 1,918,000 공용동 222 222 7,950,000 3,954,000 공용동 222 222 1,950,000 5,929,000 공용동 222 222 4,954,000 3,929,000

☎222-8446

2007 국가직/지방직 대비

7급 공무원 특강 개강 1월 2일

현 노량진 올스타 교수진 실강

강의 불만족시 수강료 전액 환불

● 개설 직종 ●

행정직, 교육행정직, 사회복지직, 소방직, 교정직

● 특별이벤트 : 1. 기본교재 3권(10만원 상당) 무료 증정
2. 정독실(365일 24시간 개강) 30% 할인

공인 무료 2007년 10월 중개사 무료 교육 시험 대비

- 재직자(고용보험 가입자) 무료 수강생 선착순 모집
- 전국 공인중개사 스타 교수진(EBS방송강사) 총 출강(저지직강)

개강 1월 2일 첫진도 (주간반, 야간반)

※ 2개월 이상 수강 신청시 최신 스튜디오 중점(SK텔레콤 단말기)

● 메가톤급 자신감 ● **光州 메가고시학원**

http://www.gmega.co.kr

☎ 062)226-5050, 225-8181